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 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7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정보통신정책과장 강명수(2110-4801), 박중수 사무관(2110-4796)

'11. 6월 IT수출 전년 동월대비 1.7% 증가한 132.4억 달러, 63.3억 달러 흑자

– 휴대폰 수출 호조에 힘입어 4개월 연속 130억 달러帶 수출, 60억 달러帶 흑자 –

지식경제부는 6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1.7% 증가한 132.4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6일 밝혔다. IT수출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수출 호조로 4개월 연속 130억 달러帶 수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IT수지는 전체 산업 흑자(32.5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63.3억 달러로 전체 수지 흑자를 견인하였다.

IT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2011년				2010년			
		6월P		상반기P		6월		상반기	
수 출	전체산업	481.5	(14.5)	2,753.4	(24.4)	420.5	(30.5)	2,213.2	(34.3)
	IT산업	**132.4**	**(1.7)**	**773.7**	**(6.3)**	**130.2**	**(28.3)**	**728.1**	**(38.4)**
수 입	전체산업	449.0	(27.4)	2,579.7	(26.6)	352.5	(37.2)	2,037.9	(40.2)
	IT산업	**69.1**	**(10.3)**	**405.8**	**(15.0)**	**62.7**	**(16.7)**	**352.9**	**(25.6)**
수 지	전체산업	32.5		173.7		67.9		175.4	
	IT산업	**63.3**		**368.0**		**67.6**		**375.2**	

품목별로는 휴대폰(특히 스마트폰), 태블릿PC, 가정용기기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과 TV 수출은 감소하였다. 휴대폰(22.2억 달러, 17.9% 증가)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향상과 노키아 등 경쟁업체 실적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고, 태블릿PC는 1.4억 달러 수출로 전월대비 100% 증가하였다.

※ 스마트폰 수출 증가율(%) : ('10.1) 4.8 → (3) 75.3 → (6) 369 → (12) 349 → ('11.1) 453→ (3) 260 → (6) 62.3

※ 태블릿PC 수출(억 달러) : ('10.10) 1.2 → (12) 1.7 → ('11.1) 1.3 → (3) 1.2 → (4) 1.2→ (5) 0.7 → (6) 1.4

그리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정용기기는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14.0% 증가한 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26.4억 달러, △8.2%) 수출은 Full HD TV, 모니터 등 전방 산업의 판매 부진과 단가 하락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반도체(42.1억 달러, △3.9%)는 시스템반도체(15.2억 달러, 14.8% 증가) 수출은 증가했으나, 메모리(21.3억 달러, △15.8%) 수출부진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또한 TV(6.4억 달러, △2.0%)는 3D TV, 스마트TV 등 신제품 출시로 완제품 수출은 증가했으나, 부분품(5.3억 달러, △3.2%) 수출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2.0%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IT수출 최대 국가인 중국(홍콩포함, 62.1억 달러, 5.3% 증가)을 비롯하여 일본(8.2억 달러, 20.1% 증가), 중남미(7.6억 달러, 4.6% 증가), ASEAN(11.8억 달러, 3.8% 증가), 중동(3.9억 달러, 24.3% 증가), 대양주(1.1억 달러, 28.1% 증가)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EU(10.4억 달러, △34.7%) 수출은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미국은 15.7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0.04% 소폭 감소하였다.

'11년 6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반도체		패 널		휴대폰		전 체	
전체	42.1	(△3.9)	26.4	(△8.2)	22.2	(17.9)	132.4	(1.7)
중국(홍콩 포함)	22.4	(△6.2)	20.5	(13.7)	4.7	(11.3)	62.1	(5.3)
미국	2.9	(6.4)	0.2	(△70.6)	7.3	(8.5)	15.7	(△0.0)
일본	2.6	(△16.7)	0.3	(△49.6)	2.7	(273.2)	8.2	(20.1)
EU	2.1	(△35.1)	2.1	(△57.6)	1.8	(△42.4)	10.4	(△34.7)

IT수입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최신 IT품목과 냉장고, 에어컨 등 계절 품목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0.3% 증가한 69.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휴대폰(4.3억 달러)은 전년 동월대비 43.8% 증가하였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8.2억 달러, 8.6% 증가) 수입도 3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그리고 계절적 수요 확대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정용기기(1.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47.3% 증가를 기록하였다.

향후 세계 IT시장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성장에 힘입어 7% 대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제품, 스마트 제품의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낸드플래시, 리튬 2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IT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유가 상승, 글로벌 부품 수급 불일치 등은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Gartner는 '11년 세계 IT시장 성장률을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시장 성장과 클라우드관련 서비스 시장 성장세를 반영하여 기존 5.6%에서 7.1%로 상향 조정

2011년 세계 IT시장 성장률 전망

(단위 : 억 달러, % : 전년대비)

구 분	2011.6월 전망		2011.3월 전망		전망치 비교 (A)-(B)
	시장 규모	성장률(A)	시장 규모	성장률(B)	
IT전체	36,720	7.1	35,982	5.6	+1.5
IT기기	8,650	9.8	8,617	9.4	+0.4
정보기기	4,189	11.7	4,089	9.5	+2.2
통신기기	4,461	8.1	4,528	9.4	△1.2
SW	11,133	7.3	10,797	5.6	+1.7
패키지SW	2,676	9.5	2,554	7.6	+1.9
IT서비스	8,457	6.6	8,244	5.0	+1.6
통신서비스	16,937	5.7	16,567	3.8	+1.9

자료 : Gartner 2011.6.

첨부 : 세부자료

< 세부자료 >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34

3. 수입 및 수지 동향 37

4. 2011년 5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39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1 휴대폰(부분품 포함)

1) 시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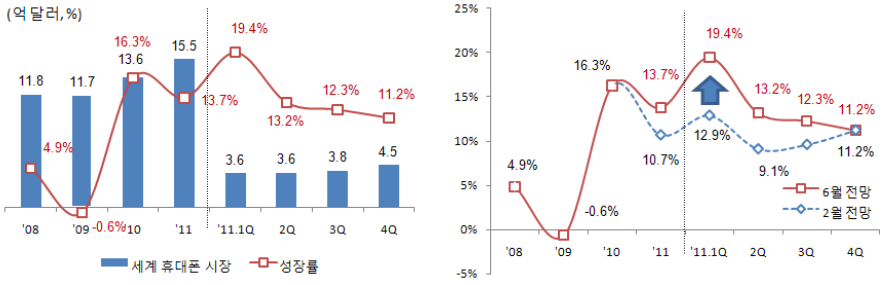
▶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13.7% 성장 예상

※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SA, 2011.6, 출하량 기준) : 15.5억 대, 13.7%

○ 시장조사 기관 SA는 최근 스마트폰과 저가폰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반영하여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 성장률을 기존 10.7%에서 13.7%로 상향 조정

※ 휴대폰 시장 세부 품목별 성장률 전망(SA, 2011.4, 출하량 기준)
: (저가폰) 10.3%, (피처폰) -1.6%, (스마트폰) 45.3%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비교 (기존vs 최근)**



자료 : SA, 2011.6. 2011.2.

▶ '11. 1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의 두드러진 성장으로 20%에 육박하는 성장 추산

○ 견조한 스마트폰 수요와 신흥 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9.4% 증가한 3.6억 대로 추산, 1/4분기로는 처음으로 3억 대 시장(출하량)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애플의 부상과 노키아의 몰락, 그리고 중화권 업체의 부상 등 세계 휴대폰 산업 경쟁 구도 변화가 심화

※ 대만 HTC는 1분기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휴대폰 제조사가 되었고, 중국 저가폰 업체인 ZTE(세계시장점유율: 4.3%), Huawei(세계시장점유율: 2.6%)는 세계 5위, 8위로 Top 10 안착

○ 제품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 등 Open OS 확산으로 디자인 경쟁과 HW 성능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

- 디자인 측면에서는 슬림화 및 스크린사이즈의 대형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듀얼코어가 주요 제품의 차별 포인트로 부각되며, 주요 업체 간 스펙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안드로이드OS 시장점유율 (SA, %) : ('09) 4.5 → ('10) 23.3 → ('11.1Q) 35.9

주요 업체별 전략 모델 스펙

구분	모델명	출시일	OS	CPU	듀얼코어	메모리	Display	두께
삼성전자	Galaxy S2	'11.2Q	안드로이드 2.3	1.2Ghz	O	32GB	4.3인치 슈퍼AMOLED	8.5mm
LG전자	옵티머스 2X	'11.2Q	안드로이드 2.2, 2.3	1Ghz	O	8GB	4.0인치	10.9mm
애플	아이폰4	'11.2월	iOS 4.2	1Ghz	-	32GB	3.5인치	9.3mm
노키아	E7	'11.1Q	심비안3	680Mhz	-	16GB	4.0인치 AMOLED	13.6mm
HTC	썬더볼트	'11.1Q	안드로이드 2.2, 2.3	1.2Ghz	O	8GB	4.3인치	14mm
소니에릭슨	XPERIA Arc	'11.1Q	안드로이드 2.3	1Ghz	-	1GB	4.2인치	곡선형 8.7mm
모토롤라	아트릭스	'11.1Q	안드로이드 2.2, 2.3	1Ghz	O	16GB	4.0인치	10.95mm

자료 : 각사

▶ 국내 업체의 높아진 스마트폰 경쟁력과 노키아의 공백 등으로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와 휴대폰 점유율 회복 예상

○ 1분기 국내업체는 경쟁업체와 달리 주력 모델(애플 CDMA용 아이폰, HTC 썬더볼트 등) 출시가 없어 부진했으나, 2분기에는 주력 모델 본격 출시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만회(27.7% 추정)할 전망

※ 휴대폰 세계시장점유율 (%, SA, 출하량기준, 팬택 포함) : ('09) 30.3→ ('10) 29.9→ ('11.1분기) 26.9

※ '11년 2분기 우리나라 휴대폰 세계시장점유율(SA 등)은 27.7% 전망

○ Gartner, SA 등 시장 조사기관('11.6월)은 금년 내 국내 업체의 세계 스마트폰 1위 진입을 전망

○ 또한, 2분기 삼성전자 휴대폰 전체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노키아를 누르고, 세계 2위에 다시 오를 전망이며, LG전자도 4위 RIM과의 격차를 줄이며 매출 확대를 이어갈 전망

휴대폰 Top 5 업체 매출(휴대폰 부문) 전망

(단위 : 억 달러)

	'09	'10	'11	'11.1Q	2Qe	3Qe	4Qe	비고
Nokia	372.5	389.2	351.4	94.0	80.2	79.6	97.6	2분기 이후 3위
삼성전자	310.0	340.8	385.7	85.5	85.1	104.0	111.2	2분기 이후 2위
Apple	148.5	290.7	481.9	118.7	97.2	125.8	140.3	1분기 이후 1위
RIM	118.8	149.5	168.5	41.7	39.2	40.6	47.1	4위
LG전자	152.4	114.4	114.5	25.5	27.6	27.5	33.8	5위

자료 : SA 2011.6

주) 1위 2위 3위 4위 5위

2) 수출 여건 및 수출 증가 원인

▶ '해외 생산 후 직수출' 물량 증가세 둔화

○ '08년 이후 제품 현지화에 따른 글로벌 브랜드 제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11.1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

※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 (%) : ('07) 34.9 → ('08) 45 → ('09) 58.2 → ('10) 64.2→ ('11.1Q) 63.1

▶ 스마트폰 등 하이엔드 제품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은 단가 개선 및 수출 증가에 기여

※ 휴대폰 완제품 수출 중 스마트폰 비중 (%) : ('09) 11 → ('10.상) 24→ (하) 60→ ('11.1~6월) 70

※ 휴대폰 수출 단가 추이(달러) : ('09) 212.5 → ('10.상) 185.4→ (하) 225.7→ ('11.1~6월) 296.7

3) 수출 동향

▶ 6월 휴대폰(22.2억 달러) 수출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향상과 노키아 등 경쟁업체 실적 부진으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 기록

○ 피처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2.2% 감소했으나, 스마트폰은 62.3%, 부분품은 26.1% 증가하며 휴대폰 수출을 주도

▶ (지역별) 스마트폰 수출 호조로 휴대폰 수출 1, 2위 국가인 미국(7.3억 달러, 8.5% 증가), 중국(홍콩 포함, 4.7억 달러, 11.3% 증가)을 비롯한 일본(2.7억 달러, 273.2% 증가), 중남미(1.8억 달러, 61.5% 증가), 중동(0.7억 달러, 46.9% 증가) 등 대부분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

○ 반면, 재정위기 우려가 재기되는 EU(1.8억 달러, △42.4%), 동유럽(0.4억 달러, △31.4%) 수출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휴대폰 (부분품 포함)	18.8 (△25.0)	18.9 (△27.7)	18.8 (△17.6)	21.1 (△16.1)	26.5 (2.9)	26.8 (8.9)	22.4 (21.7)	23.8 (11.9)	19.8 (5.6)	21.7 (5.8)	23.2 (31.9)	24.4 (38.9)	22.2 (17.9)
스마트폰	5.0 (368.9)	5.4 (376.0)	6.2 (378.1)	8.3 (560.0)	10.8 (268.1)	11.8 (240.5)	10.2 (349.2)	9.5 (452.8)	9.2 (396.5)	8.2 (260.0)	12.2 (517.7)	12.5 (323.4)	8.2 (62.3)
피처폰	7.0 (△55.9)	5.8 (△60.8)	4.7 (△59.6)	4.3 (△66.7)	7.0 (△45.0)	6.7 (△45.3)	5.1 (△40.2)	4.9 (△47.4)	3.9 (△56.8)	4.3 (△57.0)	3.2 (△63.4)	3.7 (△45.6)	5.4 (△22.2)
부분품	6.8 (△17.1)	7.7 (△24.7)	7.8 (△20.5)	8.5 (△22.4)	8.8 (△13.9)	8.4 (△6.5)	7.1 (△6.7)	9.4 (△7.8)	6.7 (△14.7)	9.1 (11.7)	7.8 (13.2)	8.2 (5.7)	8.6 (26.1)

2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 '11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대비 5.1% 성장 전망(Gartner 2011.6)

○ 시스템반도체는 5.8%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PC 시장 성장 둔화로 1.2%의 저성장 예상

※'11년 세계시장성장률(Gartner, %) : (반도체 전체) 5.1, (시스템반도체) 5.8, (메모리) 1.2, (D램) -12.4

▶ '11년 1분기 반도체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한 763억 달러

○ 1분기 반도체 시장은 후방산업(PC, 모바일 기기) 업황과의 동조 현상이 심화

- PC산업 의존도가 높은 D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낸드플래시 시장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로 두 자릿수 성장 기록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

구분	'09					'10					'11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1Q
반도체	452	532	627	689	2,300	709	758	801	773	3,041	763
(증가율)	(△32.7	(△22.0)	(△10.3)	(25.8)	(△11.6)	(56.7)	(42.5)	(27.7)	(12.2)	(32.2)	(7.6)
D램	34	45	61	87	227	94	108	107	88	397	82
(증가율)	(△43.1)	(△33.4)	(△9.3)	(108.0)	(△4.1)	(178.4)	(138.0)	(75.3)	(1.3)	(75.0)	△12.9
낸드	22	31	39	43	136	44	46	52	47	188	53
(증가율)	(△36.7)	(△6.4)	(38.6)	(103.8)	(15.5)	(99.9)	(47.1)	(30.8)	(8.8)	(38.6)	(22.3)

자료 : iSuppli, 2011. 5.

2) 수출 여건

▶ 국내업체들의 '11년 1분기 D램 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한 반면, 낸드플래시는 일본 업체 선전으로 소폭 하락

○ '11년 1분기 국내업체들의 D램 세계시장점유율은 약 62.8%

- '10년 3분기 이후 D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분기 연속 60% 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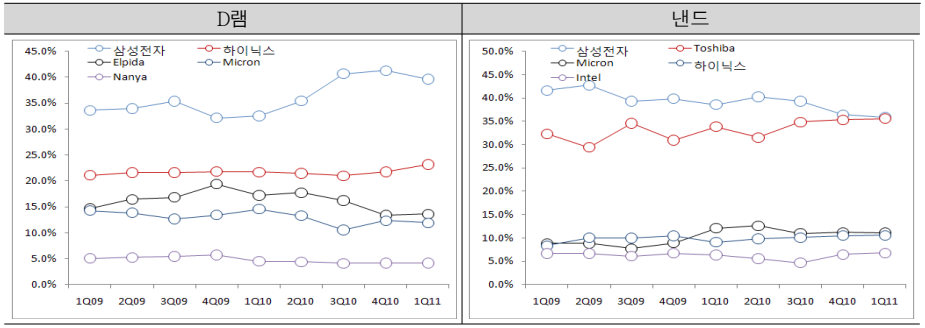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39.6%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으며, 하이닉스는 전분기보다 상승한 23.2%의 점유율을 기록

○ 같은 기간, 낸드플래시의 국내업체 점유율은 전분기(46.9%)보다 소폭 감소한 46.4%를 기록하여 '10년 2분기(50.1%) 이후 점차 감소 추세

※삼성전자 점유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36.4%⇨35.9%)하여 도시바와 격차는 더욱 축소되었으며, 하이닉스는 전분기보다 소폭 향상된 10.6% 기록(10.5%⇨10.6%)

업체별 메모리반도체 상위 업체 동향

(단위 : 억 달러, %)



자료 : iSuppli, 2011. 5.

▶ 6월 D램과 낸드플래시 단가는 전월대비 하락세 전환

○ 6월 평균 D램 가격은 0.95달러로 전월대비 6.9% 감소

- D램 가격은 5월 상반 월에 1달러를 회복했으나, 6월 상반 월에 1달러 이하(0.98달러)로 다시 하락하였고, 하반 월(0.92달러)에도 하락세 지속

- D램 가격 하락은 북미·유럽지역에서의 PC 판매 부진이 주요인

○ 낸드플래시, 6월 가격은 2.9달러로 전월대비 약 13.6% 하락

- 낸드 업체의 20나노 급 제품 비중 확대(생산 능력 증가)에 따른 글로벌 공급량 증가로 낸드플래시 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은 국내업체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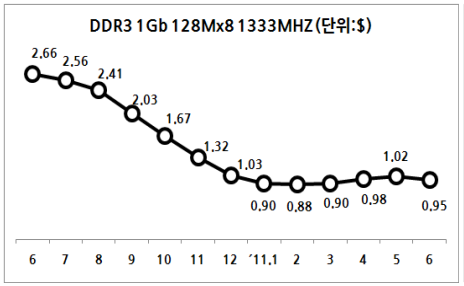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국내 업체들은 경쟁업체에 비해 모바일D램, 서버용D램 등 가격과 수익성이 하이엔드 중심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어

-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는 점유율 확대 기회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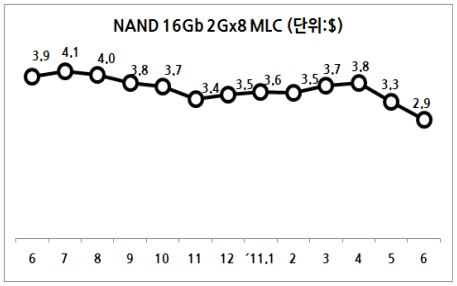
※'11년 D램 세계 시장 성장률(Gartner, %) : (정보기기용 D램) 238억 달러, 18.1↓, (통신용 D램) 51억 달러, 24.6↑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D램



낸드플래시



주) 낸드플래시 6월 가격은 Spot Price 평균임
자료 : DRAMeXchange, 2011.6.

3) 수출 동향

▶ 6월 반도체 수출은 42.1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9% 감소

○ 메모리 반도체 수출 감소(△15.8%)가 전체 반도체 수출 감소의 주요인

-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램(12.2억 달러, △27.0%)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 기록

- 낸드플래시(2.4억 달러, 1.1% 증가)는 최근 단가하락으로 성장률이 정체되었으나 성장 기조는 지속

○ 반면,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 AP, 시스템반도체 MCP 등 수출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14.8% 증가한 15.2억 달러 기록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반도체	43.8 (74.1)	46.2 (70.8)	47.4 (64.9)	47.7 (48.6)	45.6 (32.8)	41.3 (18.1)	42.5 (23.5)	40.9 (23.9)	36.5 (9.2)	44.7 (10.6)	41.6 (△0.4)	41.8 (△4.7)	42.1 (△3.9)
메모리	25.3 (103.2)	26.4 (98.5)	27.9 (90.4)	26.6 (65.8)	24.5 (37.6)	20.3 (4.4)	21.4 (7.2)	21.8 (11.3)	18.8 (△2.8)	23.4 (2.6)	22.2 (△9.6)	22.1 (△15.3)	21.3 (△15.8)
D램	16.7 (141.8)	17.8 (119.)	18.8 (116.9)	17.5 (86.9)	16.4 (56.1)	12.7 (2.9)	12.6 (△8.9)	11.5 (△16.2)	11.0 (△14.7)	12.8 (△14.8)	12.5 (△22.2)	12.5 (△28.7)	12.2 (△27.0)
낸드	2.4 (48.6)	2.4 (53.7)	2.5 (26.9)	2.2 (4.3)	2.1 (△8.9)	2.2 (11.0)	2.5 (39.9)	2.5 (20.8)	2.2 (8.3)	2.7 (10.9)	2.9 (13.9)	3.2 (34.7)	2.4 (1.1)
시스템 반도체	13.2 (27.0)	14.1 (24.3)	14.2 (23.6)	15.3 (18.4)	15.1 (15.1)	15.6 (25.9)	15.4 (38.5)	13.8 (36.9)	12.2 (16.4)	15.1 (22.2)	13.7 (11.5)	14.3 (10.8)	15.2 (14.8)

▶ (지역별) 對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6.4% 증가하여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섬

○ 중국(홍콩 포함, 22.4억 달러, △6.2%), 미국(2.9억 달러, 6.4% 증가), 일본(2.6억 달러, △16.7%), EU(2.1억 달러, △35.1%)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 수출은 감소

3 디스플레이 패널

1) 시장 환경

▶ '11년 2분기,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TV 세트 업체들의 보수적인 재고 정책 등으로 패널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전망

○ '11년 1분기 전년 동기대비 19.3% 감소한 LCD 패널 시장은 일부 대만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동률 상향으로 공급 과잉 심화

- 臺 CMI('11년 1분기 점유율 15.6%, 4위) 등은 5월부터 공격적으로 가동률을 상향함으로써 가격 등 2분기 시장 여건의 개선 속도에 부정적 영향

※ '11년 6월, 臺 AUO('11년 1분기 점유율 16.6%, 3위)은 슬로바키아 LCD 패널 공장 가동 시작

- 다만, TV 등 전방 수요 시장 정체와 패널 업체의 가격 안정화 추구 등으로 자발적인 가동률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급 감소가 예상

○ 중국 등 신흥 시장의 견조한 성장과 미국, 서유럽 등의 선진 시장의 부진 지속

- '11년 5월, 창홍, 하이얼, 하이센스, 콘카, 스카이워스, TCL 등 중국 TV 세트 업체들에 공급된 패널은 총 361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로는 64% 증가(Displaybank, '11.6)

※ TCL은 40인치 이상 패널 구매 비중이 약 44%, LED 패널 비중이 약 52%로 국내 업체들에게 긍정적

- 다만, 재정 위기가 가계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유럽 등 선진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여 세트 업체들의 재고 확충은 미온적

▶ '11년 6월, 디스플레이 업체 간 경쟁심화 조짐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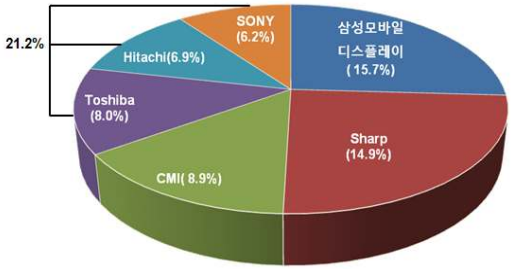
○ LCD TV 패널 시장의 부진 속에 태블릿PC 등 모바일 제품 수요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어 중소형 패널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심화 전개 중

○ 日 Sharp와 臺 CMI는 공동 부품 조달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 중이며 중국 16개 AMOLED 업체들은 '중국 OLED 산업 연맹'을 결성('11.6.14)하는 등 국내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가시화

○ 특히, 日 SONY-Toshiba-Hitachi는 중소형 패널 사업을 통합하기로 발표('11.6.30)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산업혁신 기구 자금 2,000억 엔을 투입할 전망

중소형 패널 상위 6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11.1Q)

(단위 : %)



주)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자료 : DisplaySearch, 2011.4.

2) 수출 여건

▶ 중국 등 신흥 시장의 LCD TV 수요 성장 등은 수출에 긍정적

○ 중국의 LED, 3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긍정적

- 특히,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중국 시장 성장은 가격 안정화 등에 기여

- 한편,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Captive Market은 물론 고객 다변화 추진 중

※ LG디스플레이는 Vizio, Toshiba, Philips 등에 3D 패널을 공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Apple 向 LCD 라인의 증설 추진

○ 경쟁국인 대만 업체들의 양안 관계 활용, 해외 생산 능력 확대 등의 시장 공세는 중국, 서유럽 등의 수출 증대 및 개선에 제약 조건

- 대만 경제부(MOEA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 투자 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는 AUO의 中 FVO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였으며 FVO는 중국 쿤산에 8.5세대 라인을 투자할 계획

- 또한 AUO는 中 창홍과의 합작사인 BVCH의 LCD TV 모듈 생산 능력을 월 3~5만 대 수준에서 '12년에 1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 중국 등의 신흥 시장 성장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세트 업체들의 보수적 재고 정책으로 TV 패널 가격은 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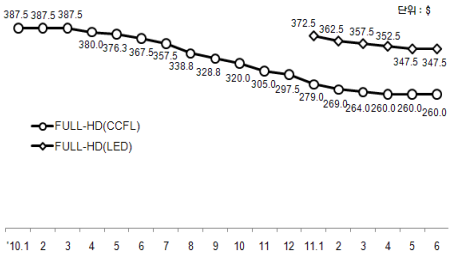
○ '11년 5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LCD TV 패널은 6월 평균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트북용 패널은 전월대비 0.1달러 증가

○ 이는 북미, 서유럽 등의 수요 부진 등에 기인한 것이지만 보합세를 유지했다는 것은 패널 가격의 흐름이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 농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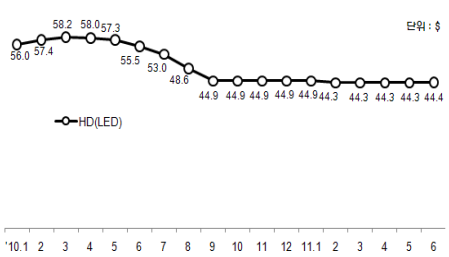
- 패널 가격의 안정화 등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국내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수출 개선에 영향

디스플레이 가격 동향(평균)

<LCD TV 패널-Full HD>



<노트북 패널-LED>



주) LCD TV 패널(32인치~47인치) 평균, 노트북 패널(10.1인치~17.3인치) 평균
자료 : Witsview, 2011.6

3) 수출 동향

▶ 6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패널 가격의 안정세 돌입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등의 경기 불안 지속, '10년 수출 기저 효과 등으로 8.2% 감소한 26.4억 달러 기록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의 수출 증가와 미국, 남미, 유럽의 수출 감소 지속

○ 중국(홍콩포함)은 3D·LED 패널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13.7% 증가한 20.6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경기 회복 지연 중인 EU(2.1억 달러, △57.6%)와 지역 생산 거점인 동유럽(2.0억 달러, △52.2%) 수출이 동반 감소

- 또한, 북미지역 생산 거점인 중남미(1.7억 달러, △26.4%) 수출도 감소

- 한편, 현재 수출 시장에서 비중은 작으나 인도(0.1억 달러, 134.1%), 중동(0.3억 달러, 475.9%) 등의 성장이 두드러짐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패널	28.8	31.9	31.9	28.6	28.9	27.3	26.5	25.6	22.6	27.0	26.3	27.1	26.4
(증감율)	(28.2)	(27.5)	(25.2)	(8.9)	(8.7)	(9.5)	(0.8)	(4.0)	(△3.3)	(△4.9)	(△7.3)	(△6.8)	(△8.2)
부분품	3.2	3.1	3.5	3.1	2.8	2.7	2.9	2.9	2.7	2.3	3.2	3.3	2.9
(증감율)	(40.1)	(24.0)	(26.1)	(6.8)	(△6.0)	(4.8)	(15.6)	(7.7)	(△2.2)	(△14.6)	(△3.6)	(△9.8)	(△7.3)

4 TV

1) 시장 환경

▶ DisplaySearch는 금년 세계 TV 시장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시장조사기관인 DisplaySearch는 '11년 LCD TV 시장 규모를 2억 1,049만 대(0.2% 성장)로 1분기 때 전망(2억 1,682만 대, 3.2% 성장)에 비해 600만 대 이상 하향 조정

- 경제 위기에 따른 유럽의 경기 침체, 북미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이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

※ 유럽 : 6,134만 대 → 5,629만 대(505만 대↓), 북미 : 4,050만 대 → 3,930만 대(120만 대↓)

▶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기준 강화, 대응 전략 필요

○ 50인치 이상 모든 TV의 최대 소비전력을 180W 이하로 책정, 9월부터 적용 예정

※ 에너지스타는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 측정 기준에 부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미국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획득 필요. 특히 미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유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

○ 국내 TV 제조사들의 40~50인치대 LCD·PDP TV 중 180W를 초과하는 제품이 많아 신속한 대응 필요

- LED TV는 대형 제품에서 3D를 구현해도 180W를 거의 넘지 않아 에너지 절약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LED TV 비중 확대 필요

※ 세계 LCD TV내 LED TV 비중(출하량 기준) : 2010 1분기 17.3% → 2011년 1분기 48.2%

국내 판매중인 주요 TV 소비전력 비교

구분	크기	최대 소비전력
PDP TV	42인치 HD급	약 200W
LCD TV	46인치 Full HD	약 210W
LED 3D TV	40인치 Full HD	약 130W
	55인치 Full HD	약 160W
PDP 3D TV	50인치 Full HD	약 295W

자료 : 전자신문, 2011.6.30.

▶ Apple, 2012년 일체형 TV(all-in-one Apple television) 출시 전망

○ 미국의 투자은행인 Piper Jaffray는 Apple이 2012년 후반기에 기존 셋톱박스 형태가 아닌 iOS 기반의 50인치 LCD TV 디스플레이를 자사 브랜드로 출시할 것으로 전망

Piper Jaffray의 Apple Television 전망

구분	2012	2013	2014
출하량(만 대)	140	250	432
Connected TV 시장 점유율(%)	1.3	2.0	3.0
ASP($)	1,800	1,600	1,400
매출액(억 달러)	24.7	39.7	60.5

자료 : Piper Jaffray, 2011.6.23.

▶ 국내 TV 제조사, 1~5월 누적 북미 3D TV 점유율 61.5%

○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2011년 5월까지 북미 3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누적 점유율(금액 기준)은 61.5%로 나타남

※ 액티브 셔터글라스(SG) 방식을 적용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53.7%의 점유율로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술을 채택한 Sony와 Panasonic이 2, 3위

※ 필름패턴편광안경(FPR) 방식을 적용한 LG전자는 점유율 7.8%를 기록, 지난해 4.7%보다 3.1%p 증가. 월간 점유율은 4월에 10.9%로 최대치를 보인 후 5월에 9.0%로 약간 하락

북미 3D TV 시장 점유율

(단위 : %)

구분	2010	2011					
		1~5 누적	1	2	3	4	5
삼성전자	62.7	53.7	52.1	51.7	48.8	58.7	58.4
Sony	19.2	24.1	25.4	29.3	29.7	18.8	15.9
Panasonic	12.6	11.4	15.5	10.8	10.6	7.8	12.2
LG전자	4.7	7.8	4.7	6.3	8.3	10.9	9.0

자료 : NPD(http://cn.moneta.co.kr/, 2011.6.28.재인용)

○ 한편, 1~5월 북미 평판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점유율은 45.9%를 기록

※ 이는 전년동기 46.6%보다 다소 하락한 수치

※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누적 점유율 35.0%로 2위인 Sony(12.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LG전자(10.9%), Panasonic(9.3%), Sharp(5.7%) 등이 Top5에 랭크

2) 수출 여건

▶ 미국 소비자 잡지인 컨슈머리포트는 삼성전자와 LG전자·Sony·Sharp·Toshiba·Vizio 등 6개사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13개 3DTV 제품 비교 평가 결과 발표

○ LG전자의 FPR 방식 시네마 3D TV가 최고 제품으로 평가된 반면 삼성전자의 셔터 글라스 방식 3D TV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음

※ 현재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 결과가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컨슈머리포트의 3D TV 평가

순위	제조사	모델	점수	순위	제조사	모델	점수
1	LG전자	47LW5600	76	8	Sony	Bravia 46HX909	62
2	Sony	Bravia 52HX909	74	9	삼성전자	Bravia 52HX909	61
3	Sony	Bravia 46NX810	71	10	Vizio	XVT3D650SV	60
4	Sony	Bravia 52LX900	66	11	Sharp	LC-46LE835U	59
5	Sony	Bravia 55EX720	65	12	삼성전자	UN46D6400	58
6	Toshiba	55WX800U	64	13	삼성전자	UN55D8000	57
7	Vizio	XVT3D554SV	63				

자료 : 컨슈머리포트(http://biz.chosun.com, 2011.6.27.재인용)

▶ 중국 3D TV 시장 주도권, 외국 기업에서 자국 기업으로

○ IT 조사기관인 아오웨이컨설팅(AVC)에 따르면, 중국 3D TV 시장에서 Skyworth(創維), Haier, Hisense(海信) 등 중국 토종기업들의 점유율이 2010년 1.9%에 불과하였으나 '11년 5월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국 업체들이 LG디스플레이의 FPR 3D 패널이나 CCFL을 채용하면서 원가 인하 속도를 세계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가져간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

※ 디지타임스리서치는 '11년 6월에 중국 내 시장에서 팔린 중국업체의 46인치, 47인치 3D TV 평균가격이 외국기업 제품보다 4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보도

▶ 가격 경쟁, 3D TV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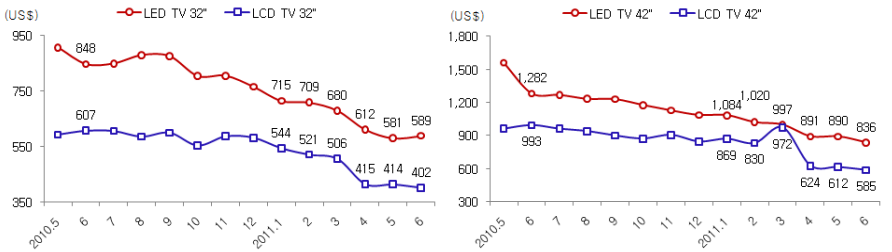
○ 위축되고 있는 수요, 메이저 기업들의 점유율 경쟁이 맞물리며 가격 하락 지속

○ 미국 시장에서는 6월 말에 Vizio가 기존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한 보급형 3D TV를 출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가격 경쟁이 3D TV 시장으로 확대 양상

- 특히, Vizio의 보급형 3D TV는 FPR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FPR 방식이 3D TV 가격 경쟁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FPR 진영에 글로벌 기업의 하나인 Vizio가 가세함으로써 SG 방식과 FPR 방식의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

LCD TV / LED TV 가격 동향



자료 : Witsview, 2011.6.

3) 수출 동향

▶ 6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0% 줄어든 6.4억 달러로 집계

○ 프리미엄 제품의 높은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동월 TV 수출의 82.6%(약 5.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품 수출이 3% 이상 감소하며 전체 TV 수출 하락

※ 프리미엄 TV 수출 : (3D TV) 4,835만 달러, 160%↑, (스마트TV) 3527만 달러, 전월대비 8.5%↑

○ '10년의 폭발적 성장이 기저효과로 작용하고, 수요 측면에서 선진 시장 특히 서유럽 시장의 수요 부진이 심화

▶ (지역별) 아프리카(12.9%↑), 대양주(40.9%↑), 아세안(34.7%↑), 인도(17.6%↑), 남미(10.9%↑)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미국(△49%), EU(△48.2%), 일본(△42.3%), 동유럽(△37.5%) 수출은 크게 감소

○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과 EU, 유럽 생산거점이 있는 동유럽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對미국 수출 성장률: '11.4월 △54.2% → 5월 △45.5% → 6월 △49.0%

※ 對EU 수출 성장률: '11.4월 △36.1% → 5월 △49.6% → 6월 △48.2%

※ 對동유럽 수출 성장률: '11.4월 △41.9% → 5월 △47.7% → 6월 △37.5%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칼라TV (부분품 포함)	6.5 (58.6)	7.0 (55.8)	7.0 (57.6)	6.6 (22.1)	6.2 (26.9)	5.6 (21.8)	5.2 (3.0)	6.4 (19.0)	6.0 (16.1)	7.2 (11.3)	6.3 (△8.4)	6.0 (△8.2)	6.4 (△2.0)
LCD TV	0.8 (46.6)	0.6 (24.9)	0.5 (46.4)	0.6 (9.8)	0.6 (△11.7)	0.6 (△7.0)	0.5 (△16.3)	0.5 (4.5)	0.5 (46.9)	0.6 (39.5)	0.7 (33.3)	0.7 (25.7)	0.8 (11.7)
PDP TV	0.3 (8.3)	0.3 (8.5)	0.3 (14.0)	0.3 (7.5)	0.3 (43.3)	0.3 (17.6)	0.2 (5.6)	0.3 (31.0)	0.3 (56.1)	0.3 (28.1)	0.3 (8.2)	0.3 (△9.2)	0.2 (△12.8)
TV 부분품	5.5 (65.2)	6.1 (64.1)	6.1 (63.2)	5.7 (25.5)	5.3 (33.3)	4.8 (28.3)	4.5 (7.8)	5.6 (20.9)	5.2 (13.0)	6.2 (8.8)	5.3 (△12.7)	5.0 (△11.0)	5.3 (△3.2)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시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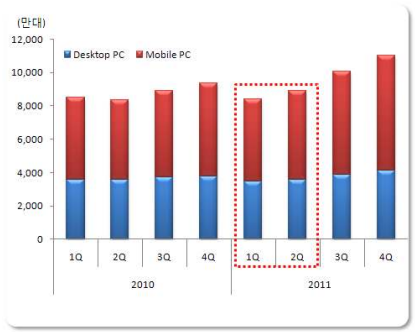
▶ '11년 상반기 글로벌 PC 시장은 데스트탑 PC 등을 중심으로 성장이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모바일 PC를 중심으로 회복세 기대

○ 상반기에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데스크탑 PC는 1.3% 감소한 7,063만 대, 모바일 PC는 5.5% 증가한 1억 232만 대 수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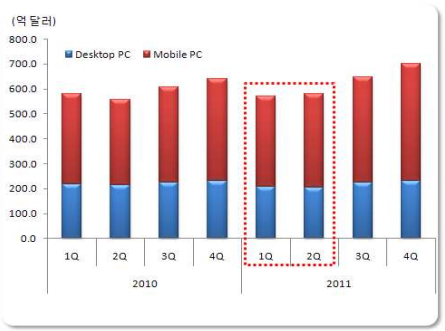
○ 하반기에는 미국 신학기 수요, 추수감사절 등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대형이벤트 등에 힘입어 모바일 PC는 21.5% 증가한 1억 3,059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나 데스크탑 PC는 시장 성숙 등의 영향으로 6.8% 성장한 8,006만 대에 그칠 전망

※ 가트너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 지속, 일본 대지진 등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올해 세계 PC판매 성장률을 기존 10.5%에서 9.3%로 하향조정

PC의 시장 현황 및 전망



〈 출하량 기준〉



〈 매출액 기준〉

자료 : Gartner, 2011.06

▶ 태블릿PC는 콘텐츠 소비에 특화된 기기로 자리매김하며 빠른 성장을 구가

○ 시장조사기관 IDC는 전 세계 태블릿PC 시장이 '10년 1,790만 대에서 '15년 1억 2,00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CAGR=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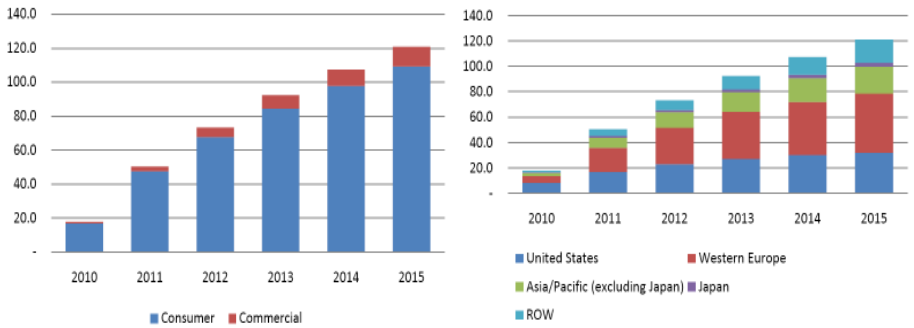
○ 태블릿PC 가격이 하락하고 글로벌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0년 50% 수준에서 '15년 25% 수준까지 하락하는 반면, 서유럽은 '15년 38.4%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애플의 아이패드는 가격, 품질, 성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등의 차별화된 우위를 바탕으로 태블릿PC 시장을 당분간 주도할 전망

○ 국내 업체들은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태블릿PC를 출시하며 태블릿PC 시장에 본격 진입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증가가 기대

태블릿PC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대)



〈 제품별 전망 〉 〈 지역별 전망〉

자료 : IDC, 2011.06

2) 수출 여건

▶ 애플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하고 2011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을 발표(6.6일 애플의 2011 WWDC에서 스티브 잡스가 직접 공개)

○ 애플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철저히 자사 제품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PC에 이어 노트북 등 PC 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 확대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터치·맥PC 등 자사 제품군간의 데이터를 자사의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를 통해 동기화시켜서 언제나 동일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서비스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돼, 콘텐츠 저장을 위한 HDD, SSD 등 PC의 저장장치 채용 축소가 예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애플의 아이클라우드(iCloud) 개념도



자료 : NIPA

▶ PC 시장의 주류가 모바일 PC로 전환되면서 기존 노트북 PC 보다 더 얇고 가벼운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

※ 전반적인 PC 시장 위축 속에서도 애플의 맥북 매출은 28% 증가하는 등 얇고 가벼운 노트북 수요는 증가 추세

○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PC 업체들은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빠른 웹사이트 전환 등의 기능을 추가한 하이엔드 노트북 PC 출시하며 시장 대응 본격화

※ LG전자는 기존 인기를 끌었던 P42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엑스노트 P430을 출시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센스 시리즈9' 13.3형을 선보인데 최근에는 11.6형을 출시

최근 출시된 슬림 노트북 PC



<맥북에어> <P430> <센스시리즈9>

자료 : NIPA

▶ 글로벌 PC 시장 둔화로 상반기에는 PC, 모니터, 기억장치 등 정보기기 전반이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태블릿PC 등을 중심으로 수출회복세 기대

○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하반기 계절적 특수와 맞물려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이 예상

○ 특히 품질·기능·가격 등의 측면에서 개선된 태블릿PC가 하반기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전망

○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이 세계 최대의 태블릿PC 시장인 미국에서 상호 제품 판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

※ 애플은 디자인 부분을, 삼성은 통신 기술 분야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vs 애플의 미국 내 소송 내용

업체	제소 내용
SAMSUN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사의 아이폰3G·아이폰3GS·아이폰4·아이팟 터치·아이패드·아이패드2 등 6개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6월 29일)
	·미국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 4종(인퓨즈(Infuse) 4G, 갤럭시 S 4G, 드로이드 차지(Droid Charge),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소송을 제기(7.1일)

3) 수출 동향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3.2% 감소한 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신규 융합제품인 태블릿PC와 SSD, 프린터 등 주변기기의 선전으로 수출 감소폭이 전월대비 개선

○ 태블릿PC는 '갤럭시 10.1' 등 신 모델이 출시되면서 전월대비 0.7억 달러 증가한 1.4억 달러로 성장세 기록

- 국내업체의 태블릿PC 세계시장점유율은 16.2%로 애플에 이은 세계 2위 기록

※ 태블릿PC 수출(억 달러) : ('11.1) 1.35→(2) 0.66→(3) 1.21→(4) 1.25 →(5) 0.71→(6)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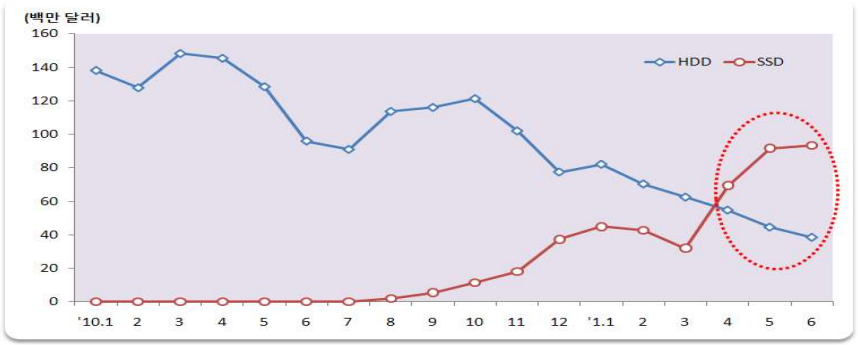
※ 태블릿PC 세계시장점유율(SA, %) : ('10.4Q) 15.5 → ('11.1Q) 16.2

○ 프린터도 10.4%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 '11.3월 이후 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 한편, 보조기억장치는 SSD를 중심으로 8.5%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년 만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

※ 국내 HDD 수출은 감소 추세, SSD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1.4월에는 SSD가 HDD 수출을 추월하였으며 수출 격차는 확대

HDD vs SSD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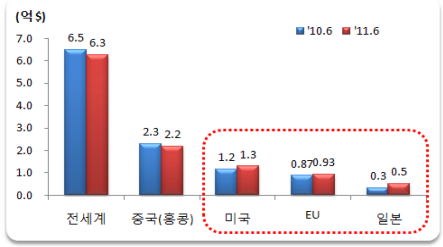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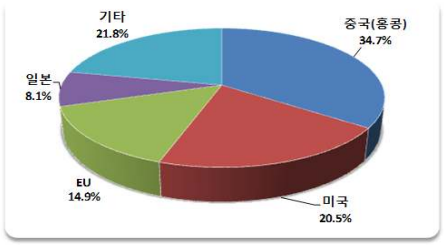
자료 : NIPA

▶ (지역별) 정보기기의 최대 수출국인 對중국(홍콩 포함, 2.2억 달러, △4.8%) 수출은 주변기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10.6월 이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 미국(1.3억 달러, 10.6% 증가), EU(0.9억 달러, 7.8%), 일본(0.5억 달러, 60.7% 증가) 등은 신규 융합제품인 태블릿PC 수출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 시현

정보기기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및 비중('11.6월)





자료 : NIPA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컴퓨터 및 주변기기	6.5 (17.9)	5.8 (△8.8)	5.3 (△5.7)	5.9 (△7.4)	7.3 (11.0)	7.8 (18.3)	6.5 (△1.2)	5.7 (△6.3)	4.9 (△18.2)	6.4 (△6.7)	5.9 (△12.2)	5.5 (△11.8)	6.3 (△3.2)
보조기억장치	1.3 (3.4)	1.3 (△23.1)	1.5 (△2.9)	1.5 (△6.9)	1.5 (△8.5)	1.3 (△20.7)	1.3 (△9.7)	1.5 (△20.5)	1.2 (△27.7)	1.0 (△42.1)	1.3 (△28.2)	1.4 (△12.2)	1.4 (8.5)
프린터	1.0 (59.3)	1.0 (17.5)	0.9 (14.4)	1.0 (△2.9)	1.1 (21.0)	0.9 (18.0)	1.0 (8.7)	1.1 (22.1)	0.8 (△10.3)	1.1 (20.8)	1.1 (5.2)	1.0 (11.1)	1.1 (10.4)
모니터	2.2 (2.9)	2.0 (△10.2)	1.6 (△21.7)	1.6 (△27.7)	1.6 (△26.2)	1.7 (△20.3)	1.9 (△22.3)	1.5 (△21.5)	1.4 (△18.0)	1.7 (△29.3)	1.5 (△33.0)	1.5 (△27.7)	1.6 (△27.0)

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중 컴퓨터, 스캐너 등 일부 주변기기, 컴퓨터 부품 등을 미포함

6 가정용기기

1) 시장 환경 및 수출 여건

▶ 일본 가전 시장은 대지진 영향으로 제품 가치 기준에 변화. 신기능 보다 절전 제품에 주력

○ 최신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에 높은 가치를 두었던 일본 가전업체들이 최근 '절전' 기능을 앞세운 신제품에 집중

- 이는 대지진 영향으로 극심한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전력부족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제한 송전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
- 이 같은 변화는 일본 진출을 준비중이거나 일본에 가전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 가치의 변화, 시장 확대로 이어져

- 전력 부족이 우려되자 절전을 위해 전기 소비량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 일본전기공업협회가 집계한 '11년 5월의 일본 내 가전제품 출하액은 1,832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13.3% 증가

※ 5월 기준 출하액으로는 11년 만에 최고치 기록. 제품별로는 에어컨 판매액이 671억 엔으로 29.7% 증가

▶ 중국 가전하향 정책, 금년 말부터 점진적 종료 예정

○ 산둥(山東)·허난(河南)·쓰촨(四川)·칭다오(青島) 등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전하향 정책이 올해 11월 만료 예정. 또한, 타 지역에서도 2012년 안으로 종료 예정

- 2007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해 온 가전하향 정책의 종료로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말이면 가전업체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일본에서 에코포인트 제도 종료를 앞두고 미뤄두었던 수요가 폭발한 것처럼 가전하향 정책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재고 수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대우일렉, 멕시코 가전시장 성장률 1위

○ 멕시코 전국 가전제품 생산자협회에 따르면, 대우일렉은 지난 1~5월 매출 성장률이 냉장고 41%, 세탁기 22% 등 전년대비 20% 이상 늘면서 성장률 1위를 차지

- 특히 냉장고 판매가 크게 늘어 멕시코 최대 브랜드인 마베(Mabe)와 Whirlpool, LG 등 주요 브랜드 성장률을 크게 앞질렀고, 세탁기 역시 고성장을 기록하며 점유율 3위를 차지

2) 수출 동향

▶ 6월 가정용기기 수출은 동월 수출의 27.4%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대비 14.0% 증가한 4.1억 달러 수출

○ 주요 가정용기기 가운데 냉장고(2.2억 달러, 16.3% 증가), 에어컨(0.3억 달러, 63.1% 증가)은 증가하였으나 세탁기(0.5억 달러, △6.0%)는 감소

▶ (지역별) 동유럽(91.4%↑), 남미(52.1%↑), 아프리카(50.3%↑), 일본(37.1%↑), 인도(36.9%↑)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양주(25.2%↑), 중동(23.5%↑), 중국(21.0%↑), 아세안(20.1%↑) 등에의 수출도 20% 이상 증가. 반면 미국(△14.7%)에 대한 수출은 다소 감소

○ 하락세가 이어지던 EU 지역에의 수출과 가정용기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EU 비중이 6월 실적에서 성장 반전

※ 對EU 수출 비중: 3월 11.8% → 4월 10.6% → 5월 8.6% → 6월 9.3%

○ 가정용기기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정체 수준에 이어 하락 반전

※ 對미국 수출 성장률: 3월 25.8% → 4월 16.5% → 5월 0.2% → 6월 △14.7%

○ 일본 시장에의 수출은 3개월 연속 30% 이상의 높은 증가세 유지

※ 對일본 수출 성장률: 4월 49.7% → 5월 31.1% → 6월 37.1%

※ 對일본 수출 비중은 1월 1.9%에서 점증하여 6월에는 3.4%로 증가

주요 가정용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가정용기기	3.6 (6.4)	3.8 (18.4)	3.4 (13.5)	3.5 (△5.8)	4.1 (20.1)	3.7 (25.0)	3.2 (7.4)	4.2 (28.5)	3.4 (0.7)	4.5 (5.4)	4.7 (4.2)	4.5 (6.2)	4.1 (14.0)
냉장고	1.9 (7.4)	2.0 (27.4)	1.8 (22.0)	1.7 (△6.7)	2.2 (22.0)	2.0 (34.1)	1.6 (12.0)	2.3 (41.9)	1.7 (△1.3)	2.3 (11.2)	2.6 (10.2)	2.6 (10.9)	2.2 (16.3)
세탁기	0.5 (5.3)	0.5 (△7.4)	0.5 (△12.0)	0.5 (△25.0)	0.6 (1.7)	0.6 (△5.9)	0.5 (△20.2)	0.6 (△2.6)	0.6 (△4.1)	0.7 (△7.8)	0.6 (△13.6)	0.5 (△17.0)	0.5 (△6.0)
에어컨	0.2 (△6.3)	0.2 (70.1)	0.1 (5.5)	0.1 (19.2)	0.2 (46.2)	0.2 (107.3)	0.1 (29.8)	0.3 (84.1)	0.4 (32.7)	0.5 (5.0)	0.4 (9.3)	0.4 (27.7)	0.3 (63.1)

7 수출 유망 품목 : 프린터(복합기 포함)

1) 세계 시장 환경

▶ 세계 복합기(MFP: Multi Function Printer) 시장은 '11년 전년 대비 10% 증가한 8,830만 대, 금액으로는 5.4% 증가한 446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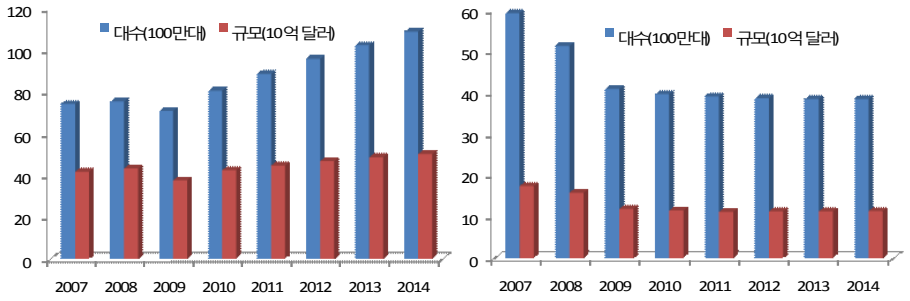
○ '11~'14년 사이 복합기 시장은 대수기준으로 7.1%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1천 달러 이하의 컬러 레이저 복합기가 시장 증가를 주도할 전망

○ 삼성전자는 '09년 세계 복합기 시장에서 점유율 3.5%로 6위에 머물렀지만, 레이저 복합기 시장에서는 HP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 세계 복합기 시장점유율('09년, IDC 2010.12): 1위 HP(41.7%), 2위 캐논(18.4%), 3위 Epson(15.7%)

※ 세계 레이저 복합기 시장점유율(%, '08년 →'09년): 1위 삼성(16.3→19.3), 2위 HP(20.9→16.5), 캐논(13.9→12.8)

프린터 및 복합기 시장 추이



(가) 복합기 (나) 프린터

자료 : IDC 2010

▶ 반면에, 세계 프린터 시장은 올해부터 '14년까지 3년간 0.5%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대수 기준)

○ 동기간 레이저는 5% 증가가 예상('11년 2,080만 대 → '14년 2,406만 대)되는 반면, 잉크젯은 7.9% 마이너스(1,496만 대 → 1,171만 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프린터 시장은 잉크젯 감소, 레이저 강세의 경향이 지속될 전망

○ 한편, ‘07년 이후 ’09년까지 프린터 시장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복합기의 시장 잠식이 주요인으로 작용

○ ‘09년 세계 전체 프린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7.1%로 4위지만, 레이저 프린터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15.1%로 2위를 유지 중

※ 세계 프린터 시장점유율(‘09년, IDC 2010.12): 1위 HP(39.7%), 2위 캐논(19.9%), 3위 Epson(13.6%)

※ 세계 레이저 프린터 시장점유율(%, ‘08년 →‘09년): 1위 HP(50.5→42.2), 2위 삼성(12.3→15.1), 캐논(7.7→9.7)

2) 국내 시장환경

▶ 우리나라 레이저 및 복합기 시장은 ‘10년 99만 대에서 ’11년 106만 대, ‘15년에는 118만 대로 증가 예상

○ 금액기준으로는 ‘10년 7,630억 원에서 ’15년 9,519억 원으로 CAGR 4.5% 증가가 기대

○ 반면에, 잉크젯 및 복합기 시장은 ‘10년 140만 대에서 ’11년 135만 대, ‘15년 127만 대로 완만한 감소가 예상(이상 IDC 2011)

▶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이동 중에 프린터에 정보를 전송하여 출력할 수 있는 스마트 프린터가 부상

○ 스마트 프린터는 정체된 프린터 시장의 돌파구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현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평가

※ 프린트 앱을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solution을 제공하는 등 각 업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프린터가 출시 중이며, 고가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

○ 최근 ‘친환경’ 기술이 프린터 시장에서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기 시작

※ 용지 걸림 발생률을 50% 감소시키는 안티잼(Anti-jam) 기술(삼성전자), 양면 인쇄기능을 통한 용지사용량 감소, 유해물질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이 신규 제품라인에 속속 적용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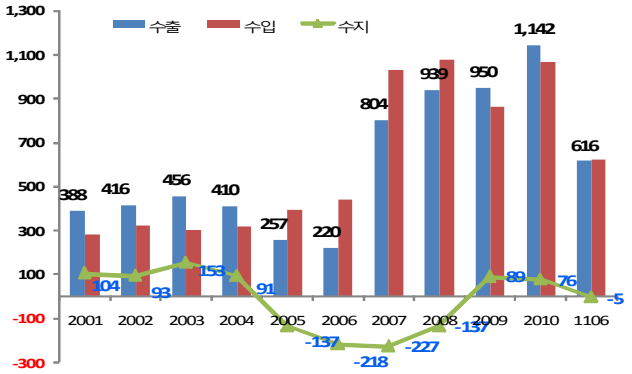
3)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 프린터(부분품 포함, 이하 동일) 수출은 ’07년 약 8억 달러에서 ‘10년 11.4억 달러로 동 기간 CAGR 12.4%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IT 수출이 감소했던 ’09년에도 1.1% 증가하였으며, ‘10년에는 20.2%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대를 돌파

프린터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약 9.7% 증가한 약 6억 1,600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6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10.4% 증가한 1억 500만 달러 기록하여 수출 10억 달러대 품목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전망

주요 제품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7	2008	2009	2010	‘11 상반기	2007	2008	2009	2010	‘11 상반기
레이저	314	400	378	496	297	310	351	248	320	173
잉크젯	5	5	8	8	2	151	112	74	83	47
부분품	479	516	542	601	293	537	576	514	628	380
전체	804	939	950	1,142	616	1,031	1,076	861	1,066	622

○ 제품별로는 수출은 레이저 프린터와 부분품이 양분하고 있으며, 잉크젯은 거의 수입에 의존

※ 국내 기업의 생산거점이 대부분 해외로 이전되어 있어 국내업체 수출 대부분은 부분품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프린터 완제품 수출은 국내 진출한 외자계 업체가 전담하고 있음

▶ 프린터 수입은 '07년 약 10.3억 달러에서 '10년 10.6억 달러로 제자리 걸음

○ 하지만 금년 들어 수입이 비교적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어 흑자 수지를 위협

※ 프린터 월간 수입 증가율(%) : '10.05(42.6)→08(27.1)→11(24.4)→'11.01(24.1)→03(22.4)→05(7.8)→06(24.9)

▶ 프린터는 '07년 약 2.3억 달러 적자를 정점으로 감소하다 '09년 약 8,900만 달러 흑자로 전환

○ '10년에도 7,600만 달러의 흑자를 유지했으나, 올 들어 수입이 수출에 비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반기 기준 약 500만 달러 적자로 다시 전환

▶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지만 그 비중이 계속 줄고 있으며('09년 30.9% → '11년 상반기 25.6%), 반면에 2위인 중국은 완만하지만 늘어나는 추세(19.7% → 21.3%)

○ 네덜란드가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약 65%차지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어 일본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프린터 총수입에서 80% 이상을 차지

프린터 수출 상위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대비)

순위	2011.06			2010			2009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157.5	25.6	미국	327.0	28.6	미국	293.2	30.9
2	중국	131.4	21.3	중국	250.4	21.9	네덜란드	187.5	19.7
3	네덜란드	107.1	17.4	네덜란드	207.8	18.2	중국	174.9	18.4
4	일본	27.4	4.4	일본	47.0	4.1	일본	43.8	4.6
5	러시아	24.3	3.9	UAE	33.9	3.0	싱가포르	28.4	3.0
소계		447.6	72.6	소계	866.2	75.9	소계	727.8	76.6
합계		616.4		합계	1,141.6		합계	9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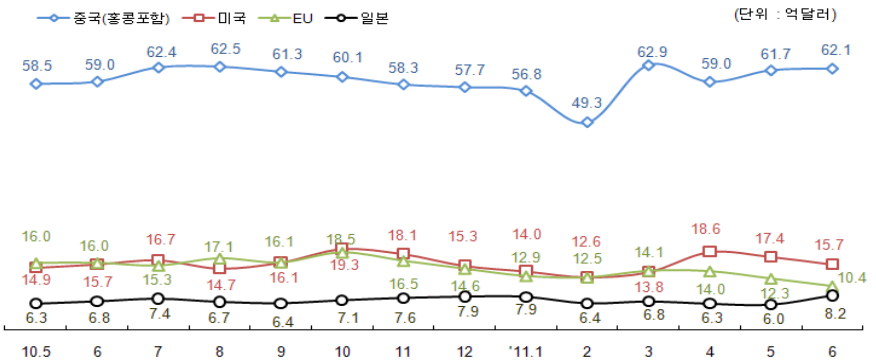
프린터 수입 상위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대비)

순위	2011.06			2010			2009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383.4	61.7	중국	613.0	57.5	중국	410.1	47.7
2	일본	123.2	19.8	일본	236.6	22.2	일본	230.5	26.8
3	싱가포르	30.7	4.9	싱가포르	67.7	6.4	싱가포르	73.6	8.6
4	말레이시아	29.2	4.7	말레이시아	46.1	4.3	말레이시아	59.6	6.9
5	베트남	18.0	2.9	미국	22.4	2.1	미국	15.3	1.8
소계		584.5	94.0	소계	985.8	92.5	소계	789.1	91.7
합계		621.8		합계	1,065.9		합계	860.7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1 중국(홍콩 포함) : 62.1억 달러, 전년 동월대비 5.3% 증가

▶ 디스플레이 패널(20.5억 달러, 13.7% 증가), 휴대폰(4.7억 달러, 11.3% 증가), TV부분품(0.7억 달러, 9.2% 증가) 등의 수출 증가로 증가세 지속

○ 반면, 반도체(22.4억 달러, △6.2%), 프린터(0.2억 달러, △3.7%), 모니터(0.8억 달러, △24.9%) 등 수출은 감소세

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금액		59.0	62.4	62.5	61.3	60.1	58.3	57.7	56.8	49.3	62.9	59.0	61.7	62.1
(증감률)		(42.5)	(35.2)	(33.8)	(19.5)	(16.9)	(15.9)	(12.0)	(8.5)	(5.5)	(9.3)	(3.5)	(5.5)	(5.3)
	중국	45.8	48.5	49.2	47.2	47.4	45.6	44.0	43.1	38.3	47.4	44.3	47.4	48.2
		(41.5)	(34.4)	(34.7)	(16.9)	(19.1)	(17.0)	(6.6)	(2.4)	(4.9)	(3.5)	(△2.2)	(3.2)	(5.1)
	홍콩	13.2	13.9	13.4	14.1	12.7	12.8	13.7	13.7	11.0	15.5	14.6	14.3	13.9
		(46.2)	(38.0)	(30.6)	(28.8)	(9.4)	(12.1)	(33.6)	(33.1)	(7.9)	(32.0)	(25.5)	(14.0)	(5.7)

2 미국 : 15.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0.04% 감소

▶ 휴대폰 수출(7.3억 달러, 8.5% 증가) 증가세 둔화와 패널 수출 부진으로 소폭 감소

※ 미국 휴대폰 수출 증가율(%) : ('10.하반기) 35.1 → ('11.1~5월) 39.9 → (6) 8.5

○ 휴대폰은 전략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경쟁제품인 아이폰의 신모델 출시 공백과 국내 스마트폰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가 지속 예상

○ 지난 4개월간 수출 감소세를 기록했던 미국 반도체(2.9억 달러, 6.4% 증가) 수출은 모바일 AP 등 시스템반도체(0.9억 달러, 143% 증가)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회복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금액	15.7	16.7	14.7	16.1	19.3	18.1	15.3	14.0	12.6	13.8	18.6	17.4	15.7
(증감률)	(12.2)	(15.0)	(12.9)	(21.2)	(42.2)	(33.0)	(24.2)	(15.6)	(△4.3)	(△3.3)	(26.0)	(17.4)	(△0.04)

3 EU : 10.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4.7% 감소

▶ 휴대폰(1.8억 달러, △42.4%), 반도체(2.1억 달러, △35.1%), 패널(2.1억 달러, △57.6%), TV부분품(0.7억 달러, △47.5%) 등 對EU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감소세 지속

EU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금액	16.0	15.3	17.1	16.1	18.5	16.5	14.6	12.9	12.5	14.1	14.0	12.3	10.4
(증감률)	(15.5)	(7.5)	(30.2)	(3.8)	(3.2)	(△2.7)	(△3.1)	(△2.3)	(△8.9)	(△9.6)	(△9.4)	(△23.2)	(△34.7)

4 일본 : 8.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0.1% 증가

▶ 스마트폰 중심의 휴대폰(2.7억 달러, 273.2% 증가) 수출과 일본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셋탑박스(0.1억 달러, 2.2% 증가) 수출이 증가

○ 반면, 반도체(2.6억 달러, △16.7%), 패널(0.3억 달러, △49.6%) 등 부품 수출은 일본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증대로 감소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금액	6.8	7.4	6.7	6.4	7.1	7.6	7.9	7.9	6.4	6.8	6.3	6.0	8.2
(증감률)	(13.8)	(23.7)	(12.4)	(△5.0)	(10.6)	(19.0)	(32.5)	(53.1)	(22.2)	(10.8)	(7.7)	(△3.7)	(20.1)

5 기타 국가

▶ 신흥 국가 중 동유럽(5.7억 달러, △32.7%)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수출이 증가

○ 중남미(7.6억 달러, 4.6% 증가)를 비롯해 ASEAN(11.8억 달러, 3.8% 증가), 중동(3.9억 달러, 24.3% 증가), 대양주(1.1억 달러, 28.1% 증가) 등 수출은 휴대폰 및 TV, 가정용기기 수출 증가로 증가세 기록

3. 수입 및 수지 동향

▶ 6월 IT수입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최신 IT품목과 냉장고, 에어컨 등 계절 품목 수요 증가로 10.3% 증가한 69.1억 달러

○ 휴대폰(4.3억 달러)은 전년 동월대비 43.8% 증가했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8.2억 달러, 8.6% 증가) 수입도 3개월 연속 증가

- 계절적 수요 확대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정용기기(1.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47.3% 증가하였고, 국내 통신망 투자확대로 유선통신기기(장비포함) 수입은 3.2억 달러로 173.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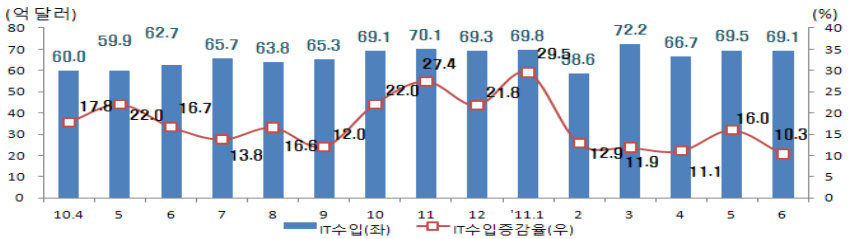
○ 일본(10.3억 달러, △4.7%)을 제외한 중국(홍콩포함, 24.4억 달러, 11.0% 증가), 싱가포르(4.2억 달러, 2.0% 증가), 대만(8.4억 달러, 2.8% 증가) 등 주요 수입국 모두 증가

'11.6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38.1	(2.2)	8.2	(8.6)	10.1	(15.9)	69.1	(10.3)
중국(홍콩 포함)	11.2	(△3.3)	5.1	(4.7)	2.3	(14.7)	24.4	(11.0)
일본	6.7	(△10.1)	0.5	(34.5)	2.2	(8.4)	10.3	(△4.7)
미국	3.5	(7.0)	0.4	(△36.0)	1.9	(12.0)	6.4	(△3.5)
대만	6.5	(0.8)	0.2	(95.7)	0.1	(29.9)	8.4	(2.8)

최근 IT 수입 추이



▶ IT 무역수지는 전체산업 흑자를 상회하는 63.3억 달러 흑자를 기록

IT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전체	67.9	50.0	12.1	44.1	63.4	25.9	40.9	26.4	21.6	25.9	45.4	21.8	32.5
IT산업	67.6	69.9	70.1	69.2	71.8	65.9	61.1	58.5	53.1	62.6	66.3	64.2	63.3

○ **(품목별)** 휴대폰(17.9억 달러), 반도체(16.5억 달러), 패널(20.1억 달러) 및 TV(6.3억 달러) 등 흑자 기조를 유지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휴대폰	15.8	16.1	15.9	16.7	21.7	21.6	17.8	17.9	15.5	15.7	19.1	19.7	17.9
반도체	17.8	17.9	20.8	20.6	16.5	13.5	14.7	12.3	12.3	17.1	15.5	14.3	16.5
패 널	23.3	26.1	26.2	22.8	23.0	21.4	21.0	20.2	17.9	21.5	20.8	21.4	20.1
TV	6.4	6.9	6.8	6.4	6.1	5.5	5.1	6.1	5.8	7.0	6.2	5.9	6.3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은 37.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은 9.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중국(홍콩)	37.0	40.6	40.2	37.0	33.9	31.3	33.3	29.7	27.7	34.7	34.0	35.0	37.7
EU	12.0	10.9	12.8	11.9	13.9	11.6	9.6	8.1	8.2	8.1	8.5	6.8	4.4
미국	9.0	10.2	8.3	9.8	12.5	11.4	7.9	7.8	7.3	7.4	12.4	10.0	9.2
일본	△4.0	△5.0	△3.9	△4.3	△2.8	△2.5	△2.8	△1.8	△2.6	△3.8	△3.4	△3.5	△2.1

4. 2011년 6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T산업 연도별·월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1/4	744.2	233.7	−30.1	714.2	127.1	−33.2	30.0	106.6
2/4	903.6	292.5	−16.2	739.7	153.7	−21.4	163.9	138.8
상반기	1,647.8	526.2	−23.0	1,453.9	280.8	−27.2	193.9	245.4
3/4	947.8	332.9	−6.9	848.5	170.7	−13.3	99.4	162.2
4/4	1,039.7	350.4	29.5	928.5	168.6	10.7	111.2	181.8
하반기	1,987.5	683.3	8.8	1,777.0	339.4	−2.9	210.5	343.9
7월	319.1	108.7	−10.5	276.8	57.7	−13.7	42.3	51.0
8월	289.5	105.9	−7.7	274.1	54.7	−13.0	15.4	51.2
9월	339.2	118.3	−2.5	297.6	58.3	−13.4	41.7	60.0
10월	339.7	120.3	0.6	304.0	56.7	−10.8	35.7	63.6
11월	339.9	117.2	36.4	295.3	55.0	17.9	44.6	62.2
12월	360.1	112.9	73.3	329.2	56.9	35.0	30.9	55.9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1/4	1,010.8	344.1	47.2	981.6	170.3	34.0	29.3	173.8
2/4	1,202.4	384.0	31.3	1,056.3	182.6	18.8	146.1	201.4
상반기	2,213.2	728.1	38.4	2,037.9	352.9	25.6	175.4	375.2
3/4	1,163.2	403.9	21.3	1,057.0	194.8	14.1	106.2	209.2
4/4	1,287.5	407.4	16.3	1,157.3	208.6	23.7	130.2	198.8
하반기	2,450.6	811.3	18.7	2,214.3	403.3	18.8	236.4	408.0
1월	307.4	110.3	59.5	315.4	53.9	31.2	−8.0	56.4
2월	330.4	106.7	39.0	310.4	51.9	31.8	20.0	54.8
3월	373.1	127.2	44.8	355.8	64.5	38.2	17.3	62.6
4월	393.0	125.9	33.3	355.2	60.0	17.8	37.8	65.9
5월	388.9	127.8	32.5	348.5	59.9	22.0	40.3	67.9
6월	**420.5**	**130.2**	**28.3**	**352.5**	**62.7**	**16.7**	**67.9**	**67.6**
7월	404.2	135.5	24.7	354.2	65.7	13.8	50.0	69.9
8월	364.8	133.9	26.4	352.7	63.8	16.6	12.1	70.1
9월	394.1	134.5	13.7	350.0	65.3	12.0	44.1	69.2
10월	433.4	141.0	17.2	370.0	69.1	22.0	63.4	71.8
11월	412.6	136.0	16.0	386.7	70.1	27.4	25.9	65.9
12월	441.5	130.4	15.5	400.6	69.3	21.8	40.9	61.1
2011년	2,753.4	773.7	6.3	2,579.7	405.8	15.0	173.7	368.0
1/4	1,310.1	374.7	8.9	1,236.2	200.6	17.8	73.9	174.1
2/4	1,443.3	399.0	3.9	1,343.6	205.2	12.4	99.7	193.8
상반기	2,753.4	773.7	6.3	2,579.7	405.8	15.0	173.7	368.0
1월	444.8	128.2	16.3	418.3	69.8	29.5	26.4	58.5
2월	384.8	111.6	4.7	363.2	58.6	12.9	21.6	53.1
3월	480.5	134.8	6.0	454.6	72.2	11.9	25.9	62.6
4월	486.0	132.9	5.6	440.6	66.7	11.1	45.4	66.3
5월	475.8	133.7	4.6	454.0	69.5	16.0	21.8	64.2
6월	**481.5**	**132.4**	**1.7**	**449.0**	**69.1**	**10.3**	**32.5**	**63.3**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3,941	27.3	100.0	13,241	1.7	77,374	6.3	100.0
정보통신기기	138,756	26.4	90.1	11,509	−1.6	68,055	3.7	88.0
○전자부품	91,302	45.6	59.3	7,451	−5.1	43,844	1.6	56.7
− 반도체	50,707	63.4	32.9	4,205	−3.9	24,751	4.7	32.0
· 메모리반도체	28,470	79.4	18.5	2,129	−15.8	12,954	−5.9	16.7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27.3	21.9	2,639	−8.2	15,496	−4.7	20.0
− 전자관	279	−11.4	0.2	19	−29.0	113	−31.6	0.1
− 수동부품	1,599	39.0	1.0	128	−8.2	809	4.2	1.0
− 접속부품	4,201.5	32.6	2.7	388	5.4	2,249	11.1	2.9
− 기타전자부품	79	27.2	0.1	10	66.4	49	29.6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10.4	5.0	627	−3.2	3,478	−9.6	4.5
− 컴퓨터	1,009	114.5	0.7	108	29.6	426	40.3	0.6
− 주변기기	5,418	2.9	3.5	424	−6.4	2,426	−15.6	3.1
· HDD	1,405	2.9	0.9	39	−59.9	353	−55.0	0.5
· 프린터	1,142	20.2	0.7	105	10.4	616	9.7	0.8
· 모니터	2,307	−7.9	1.5	158	−27.0	929	−26.5	1.2
−컴퓨터부품	1,091	1.8	0.7	71	−27.0	529	−8.5	0.7
−SW및컨텐츠	191	10.4	0.1	25	65.9	97	5.0	0.1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10.3	18.0	2,439	14.2	14,727	15.1	19.0
− 통신기기	27,526	−10.8	17.9	2,418	14.3	14,608	15.1	18.9
· 유선통신기기	1,328	26.2	0.9	86	−27.0	540	−4.3	0.7
· 무선통신기기	26,198	−12.1	17.0	2,332	16.8	14,068	16.0	18.2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13.2	16.2	2,217	17.9	13,499	18.0	17.4
− 방송국용 기기*	247	111.1	0.2	21	3.2	119	21.9	0.2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30.4	6.8	883	−4.8	5,215	1.4	6.7
− 영상기기	8,025	39.9	5.2	684	−3.2	4,073	3.2	5.3
·TV	7,452	42.6	4.8	641	−2.0	3,822	3.6	4.9
LCD TV	649	15.6	0.4	85	11.7	389	24.6	0.5
TV 부분품	6,460	49.4	4.2	529	−3.2	3,253	1.6	4.2
− 음향기기	1,082	7.7	0.7	90	−4.3	548	1.7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6.2	0.9	109	−14.1	594	−9.7	0.8
· 셋탑박스	762	12.2	0.5	48	−27.7	279	−23.9	0.4
○광자기매체	1,487	34.8	1.0	110	−16.6	791	15.1	1.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36.3	9.9	1,732	29.9	9,319	29.8	12.0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51.6	2.6	455	25.0	2,530	46.7	3.3
○가정용 기기	4,510	21.2	2.9	407	14.0	2,543	9.2	3.3
· 냉장고	2,318	29.9	1.5	216	16.3	1,360	14.0	1.8
· 세탁기	685	5.8	0.4	51	−6.0	338	−8.6	0.4
· 에어컨	286	11.9	0.2	35	63.1	243	28.0	0.3
· 전자레인지	106	−6.8	0.1	7	−32.0	48	−20.0	0.1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6.9	0.3	43	6.6	248	19.1	0.3
○전기 장비	6,284	40.7	4.1	828	44.6	3,998	37.0	5.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28.3	2.7	465	22.5	2,395	20.0	3.1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75,619	21.9	100.0	6,912	10.3	40,577	15.0	100.0
정보통신기기	65,144	21.4	86.1	5,901	9.4	34,852	14.6	85.9
○전자부품	44,363	18.8	58.7	3,811	2.2	22,794	10.2	56.2
- 반도체	31,137	17.0	41.2	2,559	-1.3	15,958	10.3	39.3
· 메모리반도체	6,048	46.2	8.0	478	7.3	3,496	40.3	8.6
- 평판디스플레이	6,496	21.7	8.6	629	14.9	3,294	8.7	8.1
- 전자관	118	-24.4	0.2	7	-25.1	42	-38.3	0.1
- 수동부품	1,707	28.3	2.3	152	4.0	889	8.8	2.2
- 접속부품	3,685	26.0	4.9	346	4.5	1,927	9.4	4.7
- 기타전자부품	132	52.1	0.2	21	66.0	100	62.5	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9,347	29.5	12.4	824	8.6	4,843	8.1	11.9
- 컴퓨터	3,078	57.4	4.1	306	14.5	1,703	18.6	4.2
- 주변기기	3,429	19.8	4.5	328	16.0	1,860	12.8	4.6
· HDD	770	19.9	1.0	80	20.0	416	4.5	1.0
· 프린터	1,066	23.8	1.4	110	24.9	622	21.8	1.5
· 모니터	1,002	17.2	1.3	70	-12.7	473	0.2	1.2
-컴퓨터부품	2,248	22.4	3.0	143	-11.9	994	-11.3	2.4
-SW및컨텐츠	592	5.5	0.8	47	1.2	286	4.3	0.7
○통신 및 방송기기	6,892	25.2	9.1	896	68.8	4,999	67.2	12.3
- 통신기기	6,756	25.0	8.9	888	70.6	4,944	68.8	12.2
· 유선통신기기	1,504	7.4	2.0	323	173.8	1,338	105.0	3.3
· 무선통신기기	5,252	31.2	6.9	565	40.3	3,606	58.4	8.9
휴대폰(부분품 포함)	4,279	37.2	5.7	432	43.8	2,923	62.2	7.2
- 방송국용 기기*	136	33.5	0.2	8	-19.6	56	-8.5	0.1
○영상 및 음향기기	2,890	11.4	3.8	239	-1.2	1,408	-5.7	3.5
- 영상기기	940	9.1	1.2	78	6.9	450	-7.5	1.1
·TV	198	1.8	0.3	16	-1.7	106	-2.9	0.3
LCD TV	17	27.8	0.0	7	353.3	36	320.0	0.1
TV 부분품	152	1.8	0.2	8	-34.8	68	-21.6	0.2
- 음향기기	1,368	8.7	1.8	122	3.7	699	3.3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581	23.1	0.8	39	-24.0	259	-21.5	0.6
· 셋탑박스	108	298.8	0.1	6	-47.8	68	14.3	0.2
○광자기매체	1,652	67.9	2.2	131	-1.3	808	5.7	2.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476	25.0	13.9	1,011	15.9	5,725	17.3	14.1
○의료정밀광학기기	7,101	31.5	9.4	677	13.9	3,867	18.2	9.5
○가정용 기기	899	19.6	1.2	119	47.3	552	30.7	1.4
· 냉장고	83	19.5	0.1	9	15.9	36	2.9	0.1
· 세탁기	71	32.7	0.1	4	-24.8	29	-21.6	0.1
· 에어컨	32	14.2	0.0	16	338.7	51	191.7	0.1
· 전자레인지	17	110.6	0.0	3	90.3	14	77.9	0.0
○사무용 기기 및 장비	136	-20.7	0.2	8	-23.7	52	-33.8	0.1
○전기 장비	2,339	13.8	3.1	208	11.0	1,254	13.3	3.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166	12.5	1.5	106	14.7	657	25.6	1.6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6월 당월			상반기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IT 전체	153,941	75,619	78,322	13,241	6,912	6,330	36,797
정보통신기기	138,756	65,144	73,612	11,509	5,901	5,608	33,202
○전자부품	91,302	44,363	46,939	7,451	3,811	3,640	21,050
- 반도체	50,707	31,137	19,570	4,205	2,559	1,647	8,793
· 메모리반도체	28,470	6,048	22,422	2,129	478	1,651	9,459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6,496	27,276	2,639	629	2,010	12,201
- 전자관	279	118	161	19	7	12	71
- 수동부품	1,599	1,707	-108	128	152	-24	-81
- 접속부품	4,202	3,685	517	388	346	42	322
- 기타전자부품	79	132	-53	10	21	-11	-50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9,347	-1,639	627	824	-197	-1,365
- 컴퓨터	1,009	3,078	-2,069	108	306	-199	-1,278
- 주변기기	5,418	3,429	1,989	424	328	96	566
· HDD	1,405	770	635	39	80	-42	-63
· 프린터	1,142	1,066	76	105	110	-5	-5
· 모니터	2,307	1,002	1,304	158	70	89	456
- 컴퓨터부품	1,091	2,248	-1,157	71	143	-72	-465
-SW및컨텐츠	191	592	-401	25	47	-23	-189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6,892	20,881	2,439	896	1,542	9,728
- 통신기기	27,526	6,756	20,769	2,418	888	1,530	9,664
· 유선통신기기	1,328	1,504	-176	86	323	-237	-798
· 무선통신기기	26,198	5,252	20,945	2,332	565	1,767	10,462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4,279	20,610	2,217	432	1,785	10,577
- 방송국용 기기*	247	136	111	21	8	13	64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2,890	7,596	883	239	644	3,807
- 영상기기	8,025	940	7,085	684	78	605	3,623
·TV	7,452	198	7,254	641	16	625	3,715
LCD TV	649	17	631	85	7	78	354
TV 부분품	6,460	152	6,308	529	8	521	3,184
- 음향기기	1,082	1,368	-286	90	122	-31	-15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581	798	109	39	70	335
· 셋탑박스	762	108	654	48	6	43	212
○광자기매체	1,487	1,652	-165	110	131	-21	-1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10,476	4,710	1,732	1,011	722	3,594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7,101	-3,155	455	677	-222	-1,337
○가정용 기기	4,510	899	3,611	407	119	288	1,990
· 냉장고	2,318	83	2,235	216	9	206	1,324
· 세탁기	685	71	614	51	4	46	308
· 에어컨	286	32	254	35	16	19	192
· 전자레인지	106	17	89	7	3	4	34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136	309	43	8	35	197
○전기 장비	6,284	2,339	3,945	828	208	620	2,744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1,166	2,917	465	106	360	1,738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3,941	27.3	100.0	13,241	1.7	77,374	6.3	100.0
○ 아시아	99,239	35.2	64.5	8,955	6.6	51,179	9.1	66.1
- 중 국	54,319	38.1	35.3	4,817	5.1	26,858	2.8	34.7
- 홍 콩	15,010	39.0	9.8	1,391	5.7	8,309	19.3	10.7
- 일 본	7,851	18.7	5.1	817	20.1	4,149	17.3	5.4
- ASEAN	13,809	29.4	9.0	1,180	3.8	7,121	10.0	9.2
· 싱가폴	5,643	20.2	3.7	467	3.1	2,854	6.9	3.7
· 인 니	952	8.6	0.6	68	-12.3	462	-8.5	0.6
· 말 련	2,415	23.1	1.6	178	-24.9	1,045	-13.3	1.4
· 태 국	1,136	14.5	0.7	112	17.5	619	11.2	0.8
- 대 만	6,420	45.7	4.2	587	8.6	3,777	26.6	4.9
- 인 도	1,537	16.4	1.0	129	3.7	795	14.3	1.0
○ 북미	19,588	16.8	12.7	1,699	2.4	9,766	9.0	12.6
- 미 국	18,508	15.9	12.0	1,566	-0.0	9,213	8.6	11.9
- 캐나다	879	39.3	0.6	115	55.6	461	26.8	0.6
○ 유럽	21,132	12.6	13.7	1,253	-29.5	8,741	-12.4	11.3
- EU	18,787	10.3	12.2	1,045	-34.7	7,614	-15.3	9.8
· 영 국	1,496	-13.0	1.0	79	-49.4	600	-14.9	0.8
· 독 일	3,302	13.5	2.1	188	-28.5	1,312	-22.5	1.7
· 프랑스	931	-23.9	0.6	50	-30.3	409	7.4	0.5
· 이탈리아	755	28.7	0.5	38	-36.5	361	17.1	0.5
- 러시아	1,535	43.2	1.0	117	0.4	627	-0.9	0.8
○ 중동	3,876	28.6	2.5	395	24.3	2,409	31.7	3.1
- 사우디	429	6.7	0.3	48	31.9	360	76.7	0.5
- UAE	1,269	45.4	0.8	119	22.5	807	51.6	1.0
○ 중남미	8,420	13.3	5.5	763	4.6	4,408	0.6	5.7
- 브라질	2,429	21.0	1.6	307	25.3	1,466	12.7	1.9
- 멕시코	5,188	5.9	3.4	355	-12.3	2,454	-7.2	3.2
- 칠 레	195	5.1	0.1	29	67.6	120	4.9	0.2
○ 대양주	1,020	2.8	0.7	108	28.1	534	19.9	0.7
- 호 주	944	4.2	0.6	97	26.4	484	18.2	0.6
○ 아프리카	635	11.6	0.4	65	25.7	326	7.2	0.4
○ 브 릭 스	59,821	36.8	38.9	5,370	6.0	29,747	3.4	38.4

주요 지역별 I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75,619	21.9	100.0	6,912	10.3	40,577	15.0	100.0
○ 아시아	60,819	23.7	80.4	5,517	9.7	32,638	15.5	80.4
- 중 국	26,311	32.4	34.8	2,379	12.7	14,779	20.6	36.4
- 홍 콩	950	32.9	1.3	64	-29.2	525	25.2	1.3
- 일 본	11,952	15.7	15.8	1,027	-4.7	5,866	6.3	14.5
- ASEAN	11,858	4.3	15.7	954	2.4	6,160	8.4	15.2
· 싱가폴	5,255	-11.1	6.9	417	2.0	2,749	11.9	6.8
· 인 니	415	40.5	0.5	32	-1.1	233	13.5	0.6
· 말 련	2,689	18.8	3.6	231	11.4	1,395	7.6	3.4
· 태 국	1,556	19.8	2.1	134	-0.9	846	10.9	2.1
- 대 만	9,698	41.7	12.8	840	2.8	5,030	15.0	12.4
- 인 도	43	14.4	0.1	4	5.0	22	0.1	0.1
○ 북미	8,068	17.7	10.7	671	-4.5	3,975	3.4	9.8
- 미 국	7,660	19.1	10.1	645	-3.5	3,792	4.1	9.3
- 캐나다	234	4.5	0.3	13	-35.1	103	-7.6	0.3
○ 유럽	5,733	14.0	7.6	650	43.2	3,440	27.4	8.5
- EU	5,134	12.9	6.8	609	52.3	3,219	34.1	7.9
· 영 국	391	10.6	0.5	31	-11.4	217	14.8	0.5
· 독 일	2,341	20.8	3.1	194	9.5	1,259	13.4	3.1
· 프랑스	660	-9.8	0.9	65	39.8	338	10.9	0.8
· 이탈리아	260	15.7	0.3	23	10.9	133	5.2	0.3
- 러시아	89	128.7	0.1	1	-58.9	7	-84.5	0.0
○ 중동	434	-12.4	0.6	21	-21.5	174	-16.1	0.4
- 사우디	1	449.8	0.0	0	-9.5	0	-55.3	0.0
- UAE	4	-37.1	0.0	1	1.4	5	74.1	0.0
○ 중남미	441	21.5	0.6	42	-0.4	275	34.3	0.7
- 브라질	16	-6.8	0.0	4	215.6	10	43.4	0.0
- 멕시코	420	22.1	0.6	37	-8.7	261	32.5	0.6
- 칠 레	2	236.2	0.0	0	-74.0	0	123.5	0.0
○ 대양주	107	16.3	0.1	9	14.1	66	34.8	0.2
- 호 주	95	15.7	0.1	8	19.1	59	34.6	0.1
○ 아프리카	17	58.0	0.0	2	-6.7	5	-56.2	0.0
○ 브 릭 스	26,459	32.6	35.0	2,387	12.8	14,818	20.3	36.5

주요 지역별 IT 수지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6월 당월			상반기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20,949	62,020	58,929	13,241	6,912	6,330	36,797
○ 아시아	73,397	49,174	24,223	8,955	5,517	3,438	18,541
- 중 국	39,344	19,868	19,476	4,817	2,379	2,438	12,079
- 홍 콩	10,802	715	10,087	1,391	64	1,327	7,784
- 일 본	6,617	10,333	-3,716	817	1,027	-210	-1,717
- ASEAN	10,673	11,369	-696	1,180	954	226	961
· 싱가폴	4,693	5,912	-1,219	467	417	50	104
· 인 니	876	295	581	68	32	36	229
· 말 련	1,963	2,263	-300	178	231	-53	-350
· 태 국	992	1,299	-306	112	134	-22	-227
- 대 만	4,407	6,845	-2,438	587	840	-252	-1,254
- 인 도	1,320	38	1,283	129	4	126	774
○ 북미	16,764	6,855	9,909	1,699	671	1,028	5,790
- 미 국	15,973	6,433	9,540	1,566	645	921	5,421
- 캐나다	631	224	407	115	13	102	358
○ 유럽	18,759	5,029	13,730	1,253	650	603	5,301
- EU	17,037	4,548	12,489	1,045	609	435	4,395
· 영 국	1,718	353	1,365	79	31	48	383
· 독 일	2,910	1,938	972	188	194	-6	53
· 프랑스	1,224	731	492	50	65	-15	71
· 이탈리아	587	225	362	38	23	15	228
- 러시아	1,071	39	1,033	117	1	116	620
○ 중동	3,013	495	2,518	395	21	373	2,236
- 사우디	402	0	402	48	0	48	359
- UAE	873	7	866	119	1	118	802
○ 중남미	7,435	363	7,072	763	42	722	4,133
- 브라질	2,008	17	1,991	307	4	303	1,456
- 멕시코	4,897	344	4,553	355	37	318	2,194
- 칠 레	185	0	185	29	0	29	119
○ 대양주	992	92	900	108	9	100	468
- 호 주	906	83	823	97	8	89	424
○ 아프리카	569	11	558	65	2	63	321
○ 브 릭 스	43,744	19,962	23,782	5,370	2,387	2,983	14,929